



대형마트 4사
밥상물가
진화 전략
니



Life

식음료업계
이색 컬래버로
'맛·건강' 시너지
L2



행복·희망 '뚝딱'... 자립준비청년·소외이웃 돕는 '깨비증권'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ESG 경영시대

KB증권

사회와의 공동 성장을 추구하는 금융 기업 KB증권이 적극적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동을 보여 주고 있다. 소외계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부터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 기업 간 ESG 생태계 구축까지 지속가능한 사회 활동에 힘 쓰는 모습이다.

◆정 나와라 뚝딱! 기념일마다 훈훈한 '깨비박스'

KB증권은 명절, 기념일마다 소외된 이웃들을 대상으로 시기별로 어울리는 '정 든든 KB박스'를 전달하고 있다. 해당 활동은 지역사회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매년 설과 추석마다 다양한 먹거리와 생필품을 전달하는 KB증권의 대표적인 사회공헌사업이다. KB증권은 2017년 추석을 시작으로 8년째 '정 든든 KB박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설 연휴였던 지난달에는 서울시 내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해 설 맞이 식재료와 겨울용 온열제품을 담은 '정(情) 든든 KB박스'를 준비했다. KB증권은 이번 설을 포함해 총 4360가정을 지원해 왔다.

김성현 KB증권 사장은 "한해를 시작하는 명절인 설을 모두가 따뜻한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KB증권은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이흥구 KB증권 사장은 "취약계층의 소외된 어르신들이 KB증권의 작은 선물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명절마다 소외이웃에 'KB박스' 전달 먹거리, 생필품 등 따뜻한 온기 나눠 교육환경 개선, 농어촌 의료봉사도

또한, KB증권은 다양한 이웃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해 추석에는 다문화 한부모 가정 300가구에 명절선물세트와 간편식을 담은 '정 든든 KB박스'를, 어버이날에는 저소득 어르신 가구 600가구에 영양제와 삼계탕 등을 담은 '孝드림 KB박스'를 준비했다. 어버이날마다 준비하는 '孝드림 KB박스' 역시 KB증권이 지난해까지 9년째 준비해 온 사회공헌 활동이다. 작년에는 서울 6개 지역구(강서·양천·노원·동작·강남·서대문구)의 저소득 어르신 가정 600가구에 전달했다.

이외에도 KB증권은 ESG중심 지속가능 경영을 실천하고자 아동들의 교육환경을



- ① 지난달 1일 KB증권 본사에서 김성현 KB증권 사장(왼쪽 두번째)과 이흥구 사장(왼쪽 세번째)이 '설 맞이 정 든든 KB박스' 전달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② 지난해 12월 1일 KB증권 연수원에서 임직원들이 '깨비증권 행복뚝딱 크리스마스 캠프'를 진행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③ 지난해 12월 14일 서울시 성동구 KT&G 상상플래닛에서 열린 KB증권의 '비콥 웨이브(B Corp Wave)' 행사 종료 후 관계자 및 참여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KB증권

개선하는 '무지개교실' 15년 넘게 이어오고 있으며, 도심과 농어촌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행복뚝딱 농어촌 의료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깨비증권이 선물하는 행복뚝딱! 자립뚝딱!

지난해 KB증권은 자립준비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자립뚝딱 깨비증권 청년 지원 프로그램' 발대식을 진행했다. '자립뚝딱 깨비증권 청년 지원 프로그램'은 자립준비청년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자기계발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사업이다. 해당 사회공헌 사업은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지는 중장기 프로그램으로, KB증권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함께 진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KB증권은 정기적인 멘토링 활동과 심리상담을 지원함과 동시에 교육을 위한 물품구입 및 부대비용, 건강관리 등 자격취득 과정에서 필요한 자기개발 비

용도 따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원자들이 더욱 효율적으로 역량강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전부터 KB증권은 '행복뚝딱 일일카페'를 진행하면서 평소 바리스타 자격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자립준비청년들을 초청해 관련 경험을 쌓도록 지원하는 등 사회공헌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았다.

이후에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사회적 소외 아동과 자립준비청년들을 대상으로 '깨비증권 행복뚝딱 크리스마스 캠프'를 진행하기도 했다. 캠프에서는 KB증권이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일일선생님 및 조장 역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멘토 역할을 수행했다. 동시에 KB증권에서는 이들 자립준비청년들이 취업 및 면접을 대비할 수 있도록, 전문 강사를 초청해 별도의 스피치 교육과정도 함께 제공했다.

◆ESG 평가 지배구조 분야 4년 연속 'A등급'

KB금융그룹은 금융회사로서는 유일하게 한국ESG기준원 ESG평가에서 4년 연속 전 부문에서 A+ 등급을 획득하며 'ESG 경영 선도 금융그룹'임을 입증했다. 이에 KB증권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ESG 경영을 실천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KB증권은 2023년 한국ESG기준원(KC GS)의 ESG 평가 지배구조(G) 분야에서 4년 연속 A등급을 받는 쾌거를 이뤘다. 'ESG+I(Investment, 투자)' 전략을 바탕으로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한 저탄소 경영, 사회적 책임 활동을 통한 동반성장 실현, ESG 생태계 참여 및 대외 기관과의 연계와 협업 등 ESG 분야별로 고르게 실행력을 높여 가며 ESG 선도 금융회사로 자리잡고자 한 노력이 인정받은 것이다. 특히 지배구조 분야에서 체계화된 ESG 실행 조직을 기반으로, 이해관계자 소통, 투명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체계 확립, 리더십과 임직원 커뮤니케이션의 조화, 내부통제와 윤리경영도 계속 강화하고 있다.

자립준비청년 교육·자기개발 지원 크리스마스 캠프 열어 취업준비 도와

ESG평가 4년간 A+... ESG경영 선도 사회적 가치 추구 '비콥운동' 나서기도

지난해 말에는 ESG 생태계 확장을 위한 '비콥 웨이브(B Corp Wave)'를 개최해 비콥 운동 지원 계획을 알리기도 했다. 비콥(B Corp)은 재정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균형 있게 추구하는 기업에게 높은 투명성과 책무성, 사회환경적 성과를 검증한 후 부여하는 인증이자 브랜드로 2006년 미국의 비영리기관 비랩(B Lab)이 구축했다.

이밖에도 KB증권은 ESG 생태계 확산을 위해 소셜벤처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KB증권 ESG 가치확산 투자조합' 펀드를 결성하고, 환경·사회에 기여하는 소셜벤처를 대상으로 임팩트 투자를 본격적으로 실시했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ESG 생태계에서 크고 작은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 대상으로 지속가능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소셜벤처 기업 임직원 대상 무료 자문 솔루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2022년에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 4대 분야에 대한 10대 원칙을 준수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국제협약 '유엔글로벌compact(UNGC)'에 가입하기도 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현대차 울산·전북, ACL 8강 맞대결...700억 걸린 빅매치
▲K리그 개막전 직접 확인한 황선홍호, 새 얼굴 뽐나 /사진 뉴시스

▲'39세' 호날두, 은퇴하나...'1년 더 하면 선수 생활 끝낼 것'
▲맨시티, 맨유에 3-1 역전 거둬...맨체스터 더비 완승



▲윤도현 대표·서건창 몰아치기...KIA 공격력 더 강해진다
▲최지만, MLB 시범경기 2경기 연속 침묵...2타수 2삼진 /사진 뉴시스